

부정경쟁행위, 적극 대처해야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경기침체 등으로 전반적인 시장상황이 악화되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쟁업체 등에 의한 부정경쟁행위가 이뤄졌을 때 손해배상 등을 통해 손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후적인 손해배상청구만으로는 정당한 권리자의 상품표지 등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부정경쟁행위자(이하 '침해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침해자의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또한 권리자는 법원에 위 침해금지 등 청구와 함께 ①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침해를 조성한 물건 폐기, ② 부정경쟁행위 등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③ 부정경쟁행위 등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④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광고선전물 중 일부 표현 등의 삭제, 광고의 중지, 수출입 금지 조치, 거래처에 대한 통지, 필요한 내용의 광고, 상호 등기의 말소 등) 역시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2항).

여기서 영업상의 이익은 재산적인 이익(현금, 자산 등) 외에 신용, 명예, 그 밖에 경영상의 이익 등을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이다. 권리자는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침해금지청구) 침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침해예방청구)에 놓여 있어야 한다.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완전히 종료됐거나 침해될 우려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위 침해금지 또는 침해예방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침해자에 대해 위와 같은 침해금지 등 청구를 할 때에는 개별 사안에 맞춰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전에(소송 등의 제기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우선, 침해자에 의해 부정경쟁행위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뤄

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침해의 태양 등에 따라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침해금지(예방 포함), 필요한 조치 등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 확인 과정에서 추후 증거 제출을 위해서도 확인된 자료나 정보 등의 수집·정리 역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또한 권리자로서는 침해자의 부정경쟁행위가 영업 등에 미치는 영향 역시 판단해 봐야 한다. 단기간의 침해행위만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앞서 살펴본 침해금지 등 청구 외에 별도의 가처분 신청 등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각 회사의 상황에 따른 경영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③ 모든 소송 제기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침해금지 등 청구의 경우에도 침해자에게 자력이 있는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확인은 필요하다.

물론 위 내용들과 더불어 부정경쟁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우리투자증권, 시각 변동 일으킬까



기 지 수 첩
신 하 은
(자본시장부)

주요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증권사를 포기했던 우리금융이 10여년간 잊혀졌던 '우리투자증권'의 부활을 예고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약 1조1500억원 수준의 자금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자기자본 기준 증권사 상위 2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의 10위권 진입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가벼운 예상을 던지기도 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출범을 앞두고 주요 증권사에서 핵심 '인력 빼내기'를 시전하고 있다. 특히 경력 측면에서는 충족했으나 진입하지 못한 인력들을 주목하고 있

다는 후문이다. 한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이 기존 연봉의 1.5배를 제시하며 인재들을 데려 가고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금융그룹은 우수 인재에게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우리투자증권의 인재 영입이 증권가 내 이슈로 떠오르자 시장에서는 요건이 충족되는 증권가 인물들을 추리며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특히 '증권 사관학교'로 불렸던 대우증권 출신 인재들을 노골적으로 모으고 있다는 평가다. 동지도 미래에셋증권 전신인 대우증권의 옛 사옥에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출신 인력들을 주로 영입했기 때문이다. 우수 인재들을 포섭해 가파른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우리투자증권은 출범 전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을 목표로 삼았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 내 초

대형 IB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5곳이다. 이들 5개사는 지난 2017년 초대형 IB로 일괄 지정됐으며, 이후 초대형 IB 지정은 전무했다. 게다가 초대형 IB의 우선요건은 자기자본금 4조원 이상이다. 현재 1조원을 웃도는 우리투자증권의 자본으로는 갈 길이 먼 셈이다.

시장에서는 자본력과 활발하게 영입하고 있는 우수 인재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와 포화된 금융투자업계를 뚫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우리금융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만큼 자본 부담이 덜하다는 강점을 이용한다면 보다 빠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투자증권이 우수 인재 영입이라는 남은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godh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8일 (금 8월 3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 48년생 일취월장할 기회가 주어지니 최선을 다하라. 60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72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 84년생 문제를 만회할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 소** 37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 49년생 소금장사 떠날데 비 내리는 격이니 잠시 지체. 61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도 생각. 73년생 선봉에 나서면 구실이 따른다. 85년생 오늘은 모든 삶의 중심에 겸손하라.
- 호랑이** 38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말조심해야 한다. 50년생 고대하던 것일수록 잘 살피라. 62년생 흐지부지될 수 있으니 모든 것은 문서로. 74년생 직책보다는 무관심이 오히려 편하다. 86년생 고통과 실패는 큰일의 밑거름이 된다.
- 토끼** 39년생 결심은 늘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다. 51년생 한발 물러서면 그다지 손해는 아니니 결단이 필요. 63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길하다. 75년생 가장 큰 협력자는 부모님이다. 87년생 파란 하늘같이 장미꽃 같은 화사한 날이다.
- 말** 40년생 오늘은 신의를 믿고 맡기면 좋은 결과가 온다. 52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을 두지 마라. 64년생 우물거에서 승능 찾지 말고 순서대로. 76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88년생 적산이 재물의 복으로 쌓인다.
- 뱀** 41년생 거친 파도를 만나지만 튼튼한 배가 있어 걱정 없다. 53년생 부적절한 관계는 망신살을 부른다. 65년생 내 것 아닌 것에 욕심은 마음만 다침. 77년생 결과는 노력이 가져온다. 89년생 오늘만큼은 사람 앞에서 자랑보다는 지출하라.
- 닭** 42년생 떠나기는 어정쩡한 하루. 54년생 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마라. 66년생 뜻은 원대하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78년생 먼 곳에서 원하지 않는 손님이 찾아오니 불청객이다. 90년생 도움을 줘도 당연시하는 형제 때문에 속이 상한다.
- 양** 43년생 오늘은 느긋하게 행동하라. 55년생 다툼이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다행. 67년생 계집이 늙으면 여우가 된다는 속담이 있다. 79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풀리는 법이니 지속해서. 91년생 어쩌면 오늘 친구의 병문안 갈 일이 있다.
- 원숭이** 44년생 결과와 과정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56년생 그물에 잡힌 물고기처럼 답답하다. 68년생 후배가 치고 올라오니 마음이 불편하고 서글프다. 80년생 최선을 다해도 못하면 내일이 있다. 92년생 믿을 없이 입안의 허처럼 구는 사람을 조심.
- 닭** 45년생 경치는 수려하나 머물 곳은 아니다. 57년생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으면 이루어진다. 69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좋은 일도 곧 울 것이다. 81년생 힘든 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93년생 지금까지 왔듯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라.
- 개** 46년생 배우자의 도움으로 어려운 일을 해결. 58년생 삶이 그랬듯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하루. 70년생 내가 도와준 어제의 후배가 경쟁자로 나타난다. 82년생 내가 좋다고 연인에게도 강요하지 않도록. 94년생 말해주는 없지만 성실하게 행동.
- 돼지** 47년생 분실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에서 조심. 59년생 아랫사람의 조언도 새겨들어야. 71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먼저 할 일을 찾자. 83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을. 95년생 낡은 물건이라도 쓸모없지만, 쓸모 있을 때가 있다.



김상회의四季 가연

지난 주말에 상담을 온 분은 필자가 외부 출타 중이었음에도 밤늦게라도 시간을 내어줄 것을 간청했다. 필자가 저녁 약속이 있었음에도 다시 충정으로 풍경소리 사무실로 들어와 마주 앉았다. 이유를 듣고 보니 세상이 변했다 하더라도 자식 문제만큼은 부모들에게는 아픈 손가락이다. 외동딸을 둔 M씨 부부는 귀히 다뤄온 딸이 유학하겠다고 할 때도 마음을 놓지 못해 따라가고픈 마음이었다. 그럴 수도 없는 일이라 유학을 보낸 후 노심초사하며 지내다가 다행히 학교를 잘 졸업하고 귀국하여 좋은 직장에 취직도 되어 이전 좋은 인연을 만나길 바라고 있던 차였다. 그런데 다니던 직장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문제는 남자가 딸 하나 딸린 돌싱이었다. M 부부는 폭탄을 맞은 것 같은 심정이었다. 아름다운 인연을 가연(佳緣)이라 한다. 남녀 간의 인연이야말로 가연을 꿈꾸지만 시작이 좋다고 끝까지 좋기가 쉽지 않은 것이 특히나 부부 연이다. 아름다운 천생배필을 기대했던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갈만하다. M씨 부부가 급하게 필자를 보고자 한 것은 딸아이의 의지가 강하여 내일 남자를 인사시키겠다는 것이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만 만약 남자와의 궁합이 좋지 않다면 인사 자리를 피하려는 심산이다.

딸은 정숙생 음력 3월인데 타고나기를 역마도 강하고 남자와의 인연은 범상치가 않다. 그런 면에서 남자가 돌싱인것도 딸 인연에 있는 일이다. 딸의 사주를 본다면 초혼에 실패하는 운기도 엿보이며 두 사람 궁합은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돌싱 남자를 만나는 것이 장애를 한 번 넘는 결과이기도 하다. 딸의 자식궁에 인성이 좋아서 남의 자식을 키워도 훌륭하게 된다. 선남선녀 초혼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가연은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방만한 부부의 얼굴이 편안해지며 일어섰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8	4	3	1
8						
7		4	3			
3	7			6		
		6		2		9
		9	6			8
						3
9	7	3	1			2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드의 열대야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9	5	7	8	1	6
8	1	9	6	3	2	7
6	8	2	9	4	5	1
4	9	2	1	8	7	6
9	2	8	6	7	1	5
5	6	1	9	2	7	8
1	4	7	8	5	2	9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6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7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